

노대통령 기자회견 왜 했나

임기말 '위기' 정면 돌파 의지

'측근 의혹' 예전과 달리 고개 숙여

'이명박 후보 고소' 원칙대로 대응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변 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연루 의혹'과 관련,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임기말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면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고소를 취하하고 "청와대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법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박했다.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융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이냐"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략적 선거 전략' 단호 대처라는 강공 입장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정국 대처법은 사안에 대한 '분리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양군, 정운재 의혹이 만약 실체적 비리로 드러나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을 망라하고 파상적으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해 들어를 경우 노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안에 대한 장악력 악화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청와대 공세로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지하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파악했다.

특히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고소에 대해

한 정치권의 반대 입장에 대한 노대

통령의 대응은 위기 상황에서 임기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여대 정권 임기말을 반주해서 대입해보면 청와대 측근 실세의 비리

이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 실세가 아니라면 신정아가 비상식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여학뉴스

"신정아 사건 몸통은 이해찬"

한나라 주장…李 "음해성 주장" 반발

에는 아직 의혹이 많다"며 "참여정부 들어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의혹을 거치며 승승장구한 변 전 실장의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주장에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변 전 실장의 관계는 '공직인 관계'였을 뿐"이라며 "2001년 당시 두 분의 관계를 이번 사건과 연결을 짓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 측 양승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다시 도졌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여학뉴스

李, 당 밖 우군 확보 주력

정의화, 예산처 장관에 '호남예산 배려' 촉구

원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이 12일 낮 분히 민주당 등 호남권을 의식한 대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호남지역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

가장 '2007 국민승리연합'과의 연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승리연합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300여 보수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으로, 한나라당은 이 단체를 외과 지지세력 결집의 구심체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하지만, 이 전 총리 측은 이 같은 주장에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변 전 실장의 관계는 '공직인 관계'였을 뿐"이라며 "2001년 당시 두 분의 관계를 이번 사건과 연결을 짓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 측 양승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다시 도졌다"고 비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1일 전남도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부남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부남(민주·완도) 의원은 "농촌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규모는 3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완도 수목원의 국립화 승격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는 F1사업과 관련 "국회 문광위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 및 주요 정당과 정책협의를 갖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박 지사는 "현재 여수는 경쟁국인 모로코와 폴란드 보다 많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9~10월 중 중남미와 동유럽, 동남아 등에 대한 집중 유치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F1 특별법 제정·여수엑스포 대책 뭔가"

"상임위 공감대 형성 정기국회 통과 확신"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전남도의회는 11일 제22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번 도정질문은 도의회가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양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으나 예상과 달리 치열한 정책 견제이나 송곳 주제는 없었으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기대회) 특별법 제정과 한·미FTA 후속 대책,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방안, 전남무역 청산 후 농어가 수출 대책,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남북교류 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철주(대통합민주신당·무인1) 의원은 "3천억원에 달하는 F1 대회 관련 예산을 적자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을 경우 대응 방안과 F1 부지내 농사를 짓고 있는 7개 부락 농가(203호)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남에 전국의 절반이 넘는 수산보호구역이 지정돼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우석(대통합민주신당·영암1) 의원은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국인 모로코가 적극적인 득표활동을 전개, 여수 유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대불국가산 활성화 방안과 급증 일로에 있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고승호(민노·비례) 의원은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한·미FTA 국회비준안 거부 노력과 국내산 도축우의 엄격한 품질 관리,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자칩을 이용한 하우 이력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이 전년 대비 5.2%나 인하되고 공공비축량도 줄어 시중 쌀값하락에 따른 쌀값跌락에 우려되고 쌀 소득 감소액이 전남에서만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후보 측 양승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다시 도졌다"고 비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도의회 신당 원내대표 강우원 의원

전남도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 대표에 강우원(영암1) 의원을 선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전남도의원 21명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결의하고 원내 총무에는 나병기(합평2) 의원을, 부총무에는 김석원(무안1·국영애·비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정창우(장성2)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당뇨병 엉터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췌장 내 "링게르한스(Langerhans: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물질)"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링게르한스 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은 없는가?

※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일명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안내서 신청 문의◎

070-7012-0246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 성장이라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범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방중등학교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용하실 분(취업주전)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학교로 더오르는 EQ(Emotional Quotient) 수준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범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부동고시학원)

★ 접수방법 : 신청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 추석에 가족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 각종행사, 미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화, 교회행사, 아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 526-2500